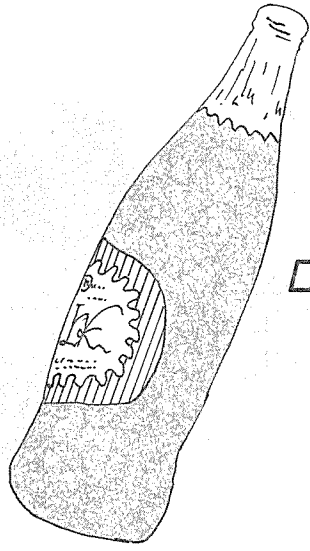


마르세이유의 샴페인

김 윤 기

마르세이유는 관광객이 별로 찾지 않는 도시다. 사실 볼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노틀담사원, 카테드랄 등이 있다하나 유럽 천지에 수없이 깔려 있는 교회당 중의 하나들이다. 이 까짓것 보기 위해 찾아 올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도시가 아름다운것도 아니다. 왠지 음산하고 범죄의 소굴같은 두려움을 주는 도시다. 항구때문인가, 잡다하고 분위기도 어수선하다.

그런데도 마르세이유는 어딘지 모를 매력이 있다. 아마 그것은 이프城이 있기 때문인지 모른다.

이프城은 듀마의 명작「몬테크리스트백작」의 무대가 되었던 성이다. 어렸을 때 밤새워 읽던「철가면(鐵假面)」(봐고베作)의 무대도 이곳이었고, 프랑스의 무수한 정치범들이 투옥된 감옥이 이곳이었다. 탐정소설 마르셀루팡의 활동무대도 마르세이유였다. 마르세이유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이런 명작들의 무대가 된것이 큰 이유이다.

이프城은 이프섬에 있다. 벨쥬해안통에서 이프섬까지 가는 배가 있다. 100명이 탈 수 있는 큰 관광선이다. 15분마다 배가 뜨는데 이프섬까지는 약 3, 4십분 걸린다.

1529년 건설된 이프성은 정치범을 수용한 감옥으로 유명하다. 한번 이곳에 들어오면 죽기 전에 다시 나갈 수 없는 무서운 곳이다. 몬테크리스트백작의 에드몬 단테가 갇혀 있던 방도 공개되고 있다. 프랑스 대혁명 때의 영웅 미라보도 이곳에 갇혀 있었다.

섬에서 가장 높은 언덕 위에 레스토랑이 있고, 지금은 세계각국에서 모여든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담소하면서 절벽을 때리는 파도를 내려다보지만 옛날에는 이곳이 죽음의 언덕이었고, 비탄의 섬이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진다.

마르세이유에는 2개의 항구가 있다. 근대적인 시설을 갖춘 신항과, 중세때의 모습을 지닌 구항·신항은 프랑스 제2의 도시(인구90만), 그리고 지중해를 지배하는 항구답게 웅장하고, 또 수만톤급의 대형선박들이 줄을 대어 드나들고 있지만, 역시 매력은 구항 쪽에 있다. 구항은 마치 누워있는 병처럼 입구는 좁고 안쪽은 길고 넓은 천연의 항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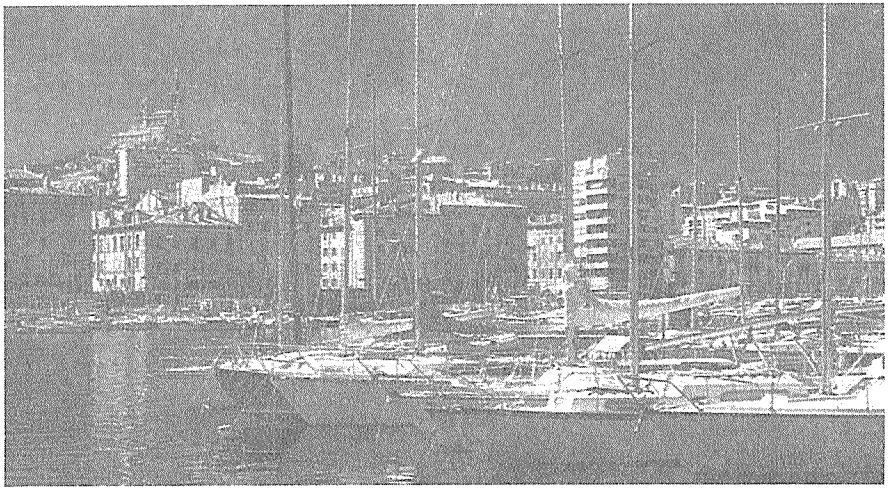
항만입구에는 양쪽으로 싼쟝요새와 싼니꼴라요새가 마주보고 있어,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었다. 옛날의 항구는 군사적 요새 역할을 겸했기 때문에 이런 묘한 지형이 항구로서의 조건에 적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ㄷ자 모양의 해안통 거리를 따라 작은 것은 2층, 큰것은 7, 8층의 옛날 집들이 둘러서 있는데, 이중에는 17세기 바로크식 건축물인 시청사를 비롯해 박물관, 관광안내소 등의 중요 기관과 호텔, 레스토랑 그리고 잡다한 상점들이 포함되어 있다.

항구에는 작은 어선과 요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가뜩이나 좁은 항만 수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배와 해안통 거리와 병풍처럼 둘러서 있는 건물들은 한폭의 원색 풍경화를 보는것 같다.

지금의 부두는 루이12세(15세기), 루이13세(17세기)때의 모습 그대로라는데, 수심은 겨우 4미터로 낮아 큰 배는 들어올 수 없다. 그래도 옛날에는 프랑스의 국력이 뻗어나간 지중해 유일의 출입구였다.

마르세이유의 항구풍경·프랑스 제1의 항구도시인데, 구항이 서민적이고 전통적인 풍물을 볼 수 있어 인상적이다.



해안통에서 싼봔산교회쪽으로 직선으로 뚫린 큰 길이 마르세이유의 메인스트리트 깐비에르大路다. 이 길의 양쪽으로 큰 호텔과 레스토랑, 명품점들이 줄을 잇고 있다. 거리는 흑인·백인·황색인등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붐빈다.

해안통 거리와 깐비에르대로는 하루종일 그냥 서서 구경만 해도 싫증이 나지 않는다. 잡다한 생존경쟁의 현장도, 이것이 잘 조화되면 아름답게 보이나 보다. 어쩌면 이 잡다한 조화의 아름다움이 바로 마르세이유의 매력인지도 모르겠다.

마르세이유에는 2개의 큰 사원이 있다. 노틀담·드라가르드寺院과 카테트랄이다. 노틀담은 162미터의 높은 바위산 위에 세워져 있어, 내려다 보면 푸른 지중해가 한눈에 들어온다.

마르세이유는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다.
어딘가 음산하고
범죄의 소굴같은
두려움을 주는 도시다.
그런데도 마르세이유는
어딘지 매력이 있다.
아마 이프성 때문일
것이다.

수많은 시인과 화가들이 찾아와 작품을 구상한 이 사원은 항해의 안전을 기도하기 위해 1864년에 지어진 것이라 한다. 이 사원을 찾은 사람 중에는 여성들이 특히 많은데, 그것은 먼 뱃길을 떠난 남편과 애인의 무사항해를 빌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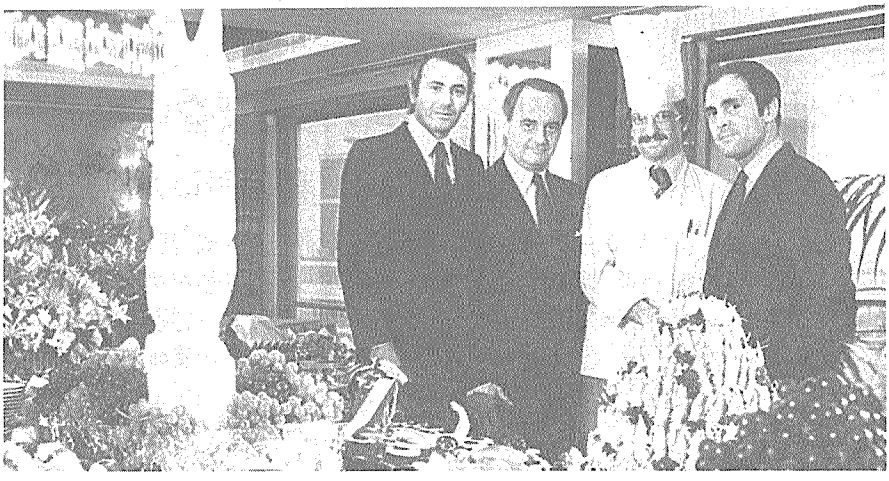
노틀담사원의 아랫쪽으로 케네디 단애도로(斷崖道路)가 지나가고 있다. 약 5킬로미터나 되는 이 길은, 마르세이유의 드라이브 코오스다. 바로 눈앞 낭떠러지 밑으로 부딪히는 파도소리를 들으면서 달리는 경치가 기가 막히다. 멀리 이프섬의 감옥도 보인다.

카테드랄은 싼쟝요새에서 신항으로 가는 어귀에 있다. 19세기에 세워진 로마네스크 비잔틴 양식의 건축물로 높이가 70미터나 되는 거대한 사원이다. 바로 옆에는 구 카테드랄(1日 大寺院)이 서 있는데 이것은 12세기때 지은 로마네스크식 건축물로, 2개의 신구사원은 좋은 대조가 된다.

마르세이유에는 이 지방 특산의 명물요리가 있다. 「뷔야베스(Bouillabaisse)」라는 이름을 가진 것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해물탕이다.

새우 뱀장어 대합조개 등을 넣고 찐요리인데, 빠리에도 있지만 원조는 역시 마르세이유다. 지중해 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생선을 재료로 쓰기 때문에 신선도가 높다. 부리드(Bourride)란 이름의 생선국과 쁘따르궤(Poutargue)란 이름의 생선알젖졸임도 명물요리들이다.

바다가 보이는 레스토랑의 창가에 앉아 와인과 함께 먹으면 더욱 운치가 있다.



식도락의 나라 프랑스에서 해산물요리의 본고장은 마르세이유다. 유명한 해산물 요리 「뷔야베스」의 원조도 이곳 마르세이유다.

내가 머물렀던 호텔은 싼샤르르역과 버스터미널의 중간쯤에 있는 클라식한 중형 호텔이었다. 하루종일 부둣가와 해안통, 깐비에르 거리를 거닐다가 돌아오면서 술을 한병 샀다.

밤에 잠이 안올때 술을 한잔 마시면 수면제 효능이 있다. 병술만 파는 전문점이라 술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았다. 술 이름도 모르고 프랑스문자도 모르니 병 모양만 보고 고를 수 밖엔 없다. 되도록 값싸고 예쁜 모양의 병이 술맛도 좋을것 같았다. 은박지로 병마개를 싼 분홍빛 렛텔이 붙은 화려한 술한병을 사들고 호텔로 돌아갔다.

피곤하긴 했지만, 와인을 마시면 더욱 기분좋은 잠을 자게 되리라 생각하고 병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콜크마게로된 병뚜껑은 잘 열리지 않았다. 병따개가 없어 혼들어 보기도 하고 벽에다가 탁탁 쳐보기도 했다.

그순간 방이 깨어지는 것 같은 펑소리가 나면서 병마개가 빠져나가고 술은 부글부글 넘쳐 방바닥으로 흘렀다. 순간 급하기도 했고 아깝기도 해서 병주둥이를 입에 틀어넣고 흘러 넘치는 술을 받아 마셨다. 껄덕껄덕 두모금을 마셨는데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아프고 숨이 차 술을 마실수가 없었다.

이 술은 와인이 아니고 샴페인이었다. 발포성거품과 탄산가스 때문에, 샴페인은 단숨에 물마시듯 마실수는 없는 술이다. 아마 가스가 기관지로 들어갔는지 사래가 들고, 가슴이 아프고, 숨을 쉬면 기침이 나왔다.

그래도 돈주고 산 술이라 버릴수는 없었다. 좀 가슴이 진정되기를 기다려 또 마셨으나, 한모금씩 이상은 더 마실수가 없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잠을 자려던 계획이 산산히 깨어진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필자 = 해외의학 교류회장 · 최신 여행 정보 발행인〉